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석유는 우리 것!” 자원 주권을 실천한 브라질 지식인 몬테이루 로바투

정재민

브라질에서 몬테이루 로바투(Monteiro Lobato)의 이름을 언급하면 누구나 판타지 아동문학 소설 『노란 딱따구리』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몬테이루 로바투가 일찌기 석유 자원에 대한 주권을 실천해 현재 브라질 최대 기업으로 성장한 브라질석유공사(Petrobras)의 설립에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1948년 7월 2일 헤코르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몬테이루 로바투는 이렇게 말을 맺는다. “석유는 우리 것입니다!” 이 말은 공식에서 그가 남긴 유언이 되었다. 이틀 뒤 같은 라디오 방송은 긴급 뉴스를 전한다.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위대한 작가이자 애국자 몬테이루 로바투가 방금 전 서거했습니다.”

몬테이루 로바투는 1882년 상파울루 근교 타우바테의 커피 농장에서 태어났다. 후에 이 농장은 작가의 수많은 판타지 소설의 배경이 된다. 법대를 졸업하고 잠시 검사 생활을 했지만 청년 몬테이루 로바투의 관심은 온통 글쓰기에 있었다. 명망 높았던 조부 트레멩베 자작으로부터 커피 농장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몬테이루 로바투는 농장을 판 돈으로 잡지사를 사들였고 1918년에는 몬테이루 로바투 인쇄출판사를 설립한다. 브라질 최초로 민족자본으로 탄생한 출판사였다. 당시 브라질에서 출판 사업은 외국회사가 도맡아 하고 있었고 인쇄 또한 대부분 유럽에서 해야하는 실정



몬테이루 로바투(출처: <https://www.geledes.org.br/tag/monteiro-lobato>)

이었다. 몬테이루 로바투는 자신이 창작하고 번역한 수많은 아동문학 작품들을 자신의 출판사를 통해 출간하고 브라질 전역에 배포할 수 있었다.

몬테이루 로바투가 석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27년 주미 브라질 대사관의 상무관으로 근무하면서부터다. 당시 미국은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시기에 있었다. 몬테이루 로바투는 미국이 빠르게 발전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자신의 조국 브라질도 미국 정부의 개발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특히 제철과 원전 개발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가 국가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몬테이루 로바투는 그저 생각에만 그치는 몽상가가 아니었다. 확신이 드는 생각이라면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가였다. 그는 브라질에 석유가 존재한다는 확신이 있었고 석유를 자신이 개발하는 꿈을 실현시키고자 했다. "모든 게 꿈에서 시작돼요. 먼저 꿈을 꾸고 그 다음엔 실행합니다." 몬테이루 로바투가 즐겨 하던 말이다. 1931년 귀국하자마자 그는 사재를 털어 브라질석유회사(Companhia Petróleos do Brasil)를 설립하고 자본을 모았다. 당시 브라질에는 대부분 미국 원전개발회사들이 들어와 시추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원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원전개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제툴리우 바르가스 정부는 브라질에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몬테이루 로바투의



몬테이루 로바투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천하는 지식인이었다(출처: <https://www.flatout.com.br>)

생각은 달랐다. 그는 브라질에 아직 석유가 나지 않는 이유는 원전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시추와 개발에 경험 있는 외국인 기술자들을 고용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치인, 기업인, 대농장주를 설득해 자본을 모으는 데 주력했다. 주식 시장에 성공한 그는 상파울루 주 아라쿠아(Araquá)와 아구아스 지 상 페드루(Águas de São Pedro) 등 여러 곳을 시추하며 본격적인 원전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자원 개발을 하는 브라질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온갖 이유를 빌미로 제동을 걸었다. 정부의 방해 작업에 외국 기업이 관련돼 있다는 증거를 확보한 몬테이루 로바투는 바르가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항의했다.

우리 국토에서 석유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가장 좋은 장소들은 이미 외국 기업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스탠다드오일의 의도가 브라질을 석유 노예국의 상태로 유지시키는데 있다고 고백한 이 기업 지질탐사팀장의 편지가 내 손 안에 있는 만큼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회신이 없자 몬테이루 로바투는 펜을 무기로 정부의 무능을 꾸짖기



동화 『자작의 우물』은 석유에 대한 자원 주권을 포기하려는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출처: <https://www.livrariacultura.com.br>)

시작했다. 『석유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통해 “정부는 브라질 기업이 석유를 개발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개발하지도 않는다”면서 정부 기관인 국립지질원을 직접 비판했다. 또한 다른 책 '석유스캔들'에서는 광물생산국 소속 외국인 기술자 2명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책은 출간하자마자 3판을 이어서 찍을 정도로 많이 팔려 나갔고 이와 함께 석유 자원 주권에 관한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바르가스 정부는 이 책을 금서 조치하고 즉각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가 아니면 잇몸이랬던가. 몬테이루 로바투는 이어서 노란 딱따구리 시리즈 동화 『자작의 우물』이라는 동화를 출간한다. 유명한 등장인물인 말하는 인형 에밀리아는 “왜 브라질도 수백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지 못합니까? 여기엔 석유가 없을까요? 훑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요. 눈을 크게 뜨고 보지 않으려는 사람을 어떻게 제대로 보게 할 수 있겠어요?”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몬테이루 로바투의 석유 개발을 위한 노력은 여론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여론에 떠밀린 바르가스 정부는 결국 1938년부터 석유시추에 착수했다. 곧바로 브라질에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바이아주 로바투 시추정이었다. 발견 장소가 몬테이루 로바투 이름과 같다는 건 아이러니한 우연의 일치였다. 정부는 국가석유위원회를 창설하고 브라질 국토에서 생산되는 모든 석유와 이미 시추를 통해 발견한 매장지까지 국유화시켰다. 수년간 공들여 찾아놓은 몇몇 석유 매장지를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셈이었다. 이에 몬테이루 로바투는 또 다시 바르가스 대통령을 비판하는 서한을 대통령궁에 보냈다. 바르가스 정권에 눈엣가시가 돼버린 그는 결국 권위주의 정권의 희생양이 된다. 몬테이루 로바투는 공화국 대통령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구속된다.

몬테이루 로바투는 비록 구속됐지만 그가 행동을 통해 실천한 자원 주권과 석유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국민들 사이에 더욱 거세졌다. 여론은 결국 그를 구속 3개월만에 석방시키게 만들었다. 바르가스 정권을 이은 두트라 행정부가 석유 개발을 외국기업에 개방하려 들자 ‘석유는 우리 것!’이라고 브라질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자원 주권을 외쳤다. 머지않아 정부 계획은 무산되었다. 석유에 대한 자원 주권을 일찌기 실천한 몬테이루 로바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아 오늘날 브라질은 물론이고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페트로브라스를 탄생하게 만들었다.